# 무소속 김경진 재선 도전…강기정 출마 여부 촉각

## ■광주 북구갑

김경진

강기정

김호중

정준호

조오섭

이승남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김경진(52) 의원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를 탈환할지, 강기정(55) 청와대 정무수석의 출마 여부 등이 관전포인트이며 변수로 꼽힌다.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는 강수를 둘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강 정무수석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당내 경선도 요동칠 전망이다.

김 의원의 무소속 출마 선언 배경에는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지역 타 지역구 당선자들이 50%대 초·중반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김 의원은 70.8%로 압도적 득표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인지도 면에서 다른 정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의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유치에 이어 광주를 4차 산업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공약 등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도 김 의원의 대항마를 찾기 위해 최근 2~3차례 광주를 직접 찾아 여론을 살펴보는 등 지역구 탈환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조오섭(51) 국가균형발전위 소통기획관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 운동권 출신으로 지역구 내에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탄탄한 게 강점이다.

또 광주시의원에 재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지난 대선에서 광주시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당 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 조 전 소통기획관은 균형위 근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실무를 쌓아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 전략공천됐다가 낙선한 정준호(39) 변호사도 최근 지역구를 돌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이폰소송 등 실생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는 청년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수석이 출마할 경우에는 일부 당내 후보의 출마 포기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호중(59) 조선대 객원교수가, 정의당에서는 이승남(50) 북구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김동철에 맞설 민주 경선 이용빈 두각

## ■광주 광산갑

김동철

나경채

이석형

이용빈

이정현

정윤

광산갑은 여·야 각 당 후보가 출마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도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인 바른미래당 김동철(63) 의원이 5선을 노리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과정도 가장 치열했다.

특히 과열된 권리당원 모집으로 불·탈법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 논란을 빚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의 당원 전수조사 여부도 관심사다. 전수조사 결과 특정후보 진영이 무더기로 권리당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중도 개혁세력 대통합으로 다당제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동철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풍부한 의정활동과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역 지지세 회복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지만 국회와 정당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경륜과 역량 면에서는 다른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용빈(54) 광산갑 위원장과 이석형(60)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이 전 군수는 당원모집 과정에서도 뜨겁게 경쟁을 펼쳤다.

의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 '광주시 노동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 중앙당 공모사업, 조직감사, 제로페이 캠페인 등으로 전국 지역위원회 최초 중앙당 평가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지역위원회 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도 나비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최근 산림조합중앙회 노조가 업무 보다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점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선 정윤(71) 광산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정현(60) 광산갑 위원장이 현재까지 탈당하지 않고 총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나경채(45)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의 제1야당이 돼 민주당을 건전하게 견제하겠다며 호소하고 있다.

# 민주당 이형석·전진숙, 최경환 의원에 도전장

## ■광주 북구을

최경환

김천국

윤민호

이형석

전진숙

광주 북구을 지역구에서는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에 합류한 'DJ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60) 의원과 민주당 이형석(58) 최고위원·전진숙(50)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애초 최 의원과 이 최고위원의 맞대결 양상이었지만 전 행정관의 뒤늦은 출마에 따라 민주당 내 경선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공보수석실 행정관과 공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김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는 최 의원은 무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기반도 탄탄해 민주당과의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그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제정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평화당을 탈당, 대안정치연대 대표간사를 맡으며 제3당 창당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광주시의회 의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제2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광주형 일자리 성공적 정착 등의 공약을 준비하면서 지지세를 늘리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아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등 조직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여년 넘도록 북구을에서만 정치 활동을 한 점 등도 강점이다.

전 전 행정관은 최근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여성정치인 최초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정부혁신 및 지방행정·사회 혁신 분야를 담당했다. 여성 가산점과 정치 신인 가점 등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세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사회 운동과 북구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등을 거쳤다.

최근 전 전 행정관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헙법전문 수록과 진상조사위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5월 정신 구현과 광주형일자리 육성발전, AI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천국(62)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민중당에서는 윤민호(48)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한다.

# 권은희 출마 불투명…줄잇는 민주 출사표

## ■광주 광산을

권은희

김성진

민형배

박시종

광산을은 바른미래당 권은희(45) 의원의 3선 도전 여부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초미의 관심사다. 권 의원은 제3지대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도 출마자 간 경쟁이 뜨거웠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 의원은 경정 특별채용에 응시해 여성 최초 합격자가 됐다.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때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상부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처음 입성한 뒤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출마한 2014년 재보궐 선거 당시 22.3%라는 전국 최하위권 투표율을 보인 데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광주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50.14%)을 기록한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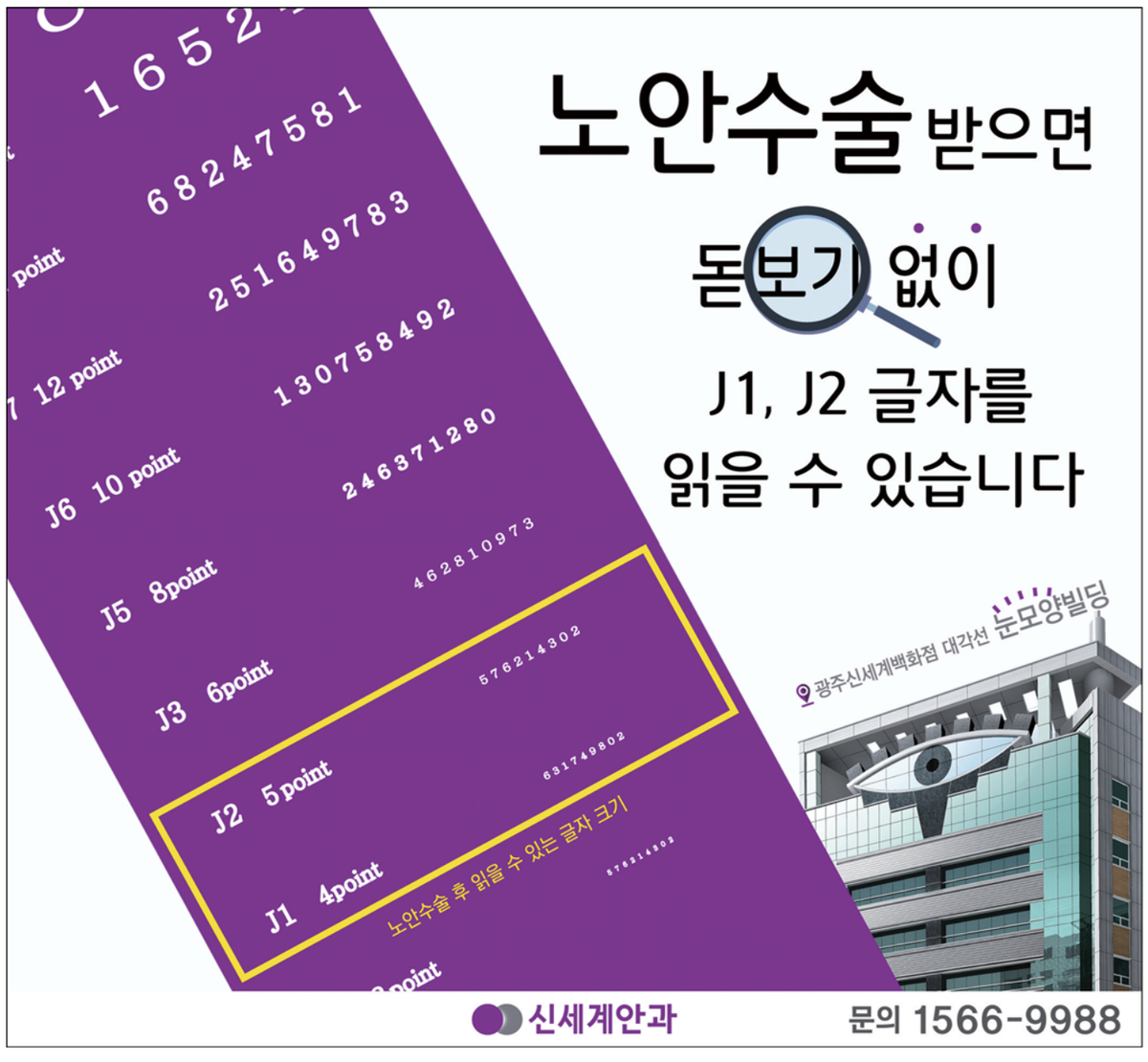
권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당 입지자들의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형배(57)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김성진(57)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박시종(55)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경선에 나선다.

광산구청장을 연임해 조직력이 탄탄한 민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지역으로 복귀해 유튜브 '민형배 정치브리핑'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청장 재임 시절 복지 정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쌓인 조직이 건재하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참여자치21대표,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진 김성진 원장도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산업자원부 중국협력팀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전남체신청장, 전남지방우정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행정관은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온 뒤 광산구에 '더나은광주연구소'를 설립해 학습과 정책 개발에 몰두하면서 지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돕는 광주 지지그룹의 참모 역할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